

孝 일깨우는 '칸타타 부모은중송'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및 미주 순회 공연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단장 황학현) 창립 20주년 기념 정기연주회 및 미주 순회연주를 갖는다. (사)해피월드가 주최하고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이 주관하는 '박범훈의 칸타타 부모은중송'은 12월 4일 오후 7시 30분 KBS홀에서 열린다.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무용·관현악단(단장 황학현)이 자리에서 '부모은중송'을 무대에 올린다. 이 곡은 1996년 광덕 스님이 <부모은중경>을 찬미한 시에 박범훈(前 중앙대 총장)이 곡을 붙인 것이다.

광덕 스님은 '부모은중송'의 가사를 쓰던 당시 "부처님이 비할데 없는 깨달음을 성취한 것도 다생(多生)동안 효도한 까닭"이라며 "효가 바로 인간으로 돌아가는 길이고, 진실한 인간을 행하는 길이며, 진실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큰 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연주회를 기획한 황학현 단장은 "부모은중송은 바흐나 헨델이 만들었던 대합창 칸타타(교성곡)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불교를 찬송하는 대규모 합창곡으로 인정받고 있는 곡"이라며 "특이 어린이 청소년들과 여성합창의 맑고 아름다운 목소

리는 듣는 이의 오감을 맑게 씻어 주고 효정신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이번 연주회는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 창단 20주년기념과 제 20회 정기연주회로 기획되며, 졸업생 중 성악전공자 20여명과 서울경기남부불교합창단연합회 소속 200여이 함께 무대에 선다. 또한 국악계의 유망주로 주목 받고 있는 김경미(이화여대), 한아름(중앙대), 한진수(중앙대)가 출연 하여 소리를 이끄는 대합창으로 어린이청소년들과 여성합창의 아름다운 미성과 감성을 한껏 뽐낼 것으로 기대된다. 입장권은 VIP석 7만원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이다.

한편,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은 내년 1월 8일~20일 미주 순회공연을 갖는다. 밴쿠버(서광사) 토론토(대각사)에서 열리는 캐나다 공연은 더글라스 킬리지 극장에서 공연된다. 시애틀(정도법당·정각사)과 포틀랜드(보광사)는 주관 사찰 경내에서, 로스앤젤레스(관음사, 반야사)는 후기성교회에서 공연을 갖는다. (02)725-7849

정혜숙 기자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의 '박범훈의 칸타타 부모은중송' 공연이 12월 4일 오후 7시 30분에 KBS홀에서 열린다.

경주박물관 낭산 석조여래좌상 공개

11월 12일 신라역사관 문 열어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이영훈)이 11월 12일부터 새롭게 단장한 신라역사관을 일반에 공개했다. 특히 중앙홀에는 경주 낭산(狼山)에서 출토된석조여래좌상이 배치된 눈길을 끈다.

이는 신라 하대에 유행했던 약사불 신앙을 보여주는 대표적 작품 가운데 하나로, 일제강점기에 서울로 올라간 이래 처음으로 고향인 경주에 돌아와 선보인다.

경주박물관은 1975년 처음 문을 열었던 '고고관'의 이름을 '신라역사관'으로 바꾸고,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4개의 전시실로 이루어진

신라역사관의 전시 면적은 약 1300㎡이며, 전시실 내 진열장의 전체 길이는 약 184m로서 옛 고고관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전시품도 4,300여점으로서 30% 이상 늘었다. 이 가운데 전마총 금관과 허리띠 등의 국보가 3점이며, 보물은 19점이다.

제1실은 신라의 건국과 성장을 제2실은 황금의 나라-신라를 제3실은 강력한 중앙 집권 왕국을 제4실은 신라의 융성과 멸망을 주제로 한다. 특히 3실에서는 불교와 관련된 흥륜사와 영묘사 출토품, 진흥왕대의 영토 확장을 보여주는 진흥왕 순수비 탁본, 전쟁을 대비해 쌓은 남산신성비와 명활산성 작성비 등을 전시한다.

정혜숙 기자

새벽 사불로 완성한 '탕카' 대중 속으로

재미교포 윌리엄리 '행복왕국에서...' 전

"매일 매일 수행하는 마음으로 탕카 사불을 했습니다. 한국 불자들은 사경을 많이 하지만 티베트 부탄 등에서는 사불을 많이 하죠. 초안은 기존 그림에서 가져오지만 탕카를 그리다 보면 그 안에 작가의 내면이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자신의 작품으로 탄생합니다."

전통 히말라야 미술의 전승을 이어 탕카 사불로 수행을 하고 있는 재미교포 윌리엄리(한국부탄문화원장)가 전시회를 열었다. 2014년 1월 31까지 전북 정읍 갤러리 정에서 열리는 '행복왕국에서 건너온 신의 미소' 전시에서 작가는 만다라와 탕카 미술 29점으로 관람객들을 찾아간다.

히말라야 고산지대의 전통 미술은 1000년 넘게 민족의 불교와 전통문화를 반영한 화려한 색채와 정밀한 디테일을 자랑한다. 특히 이 지역의 미술을 '탕카'라고 부르는데, 한국 불교사찰의 불화를 칭하는 '탱화'라는 단어가 바로 이 '탕카'라는 단어에 어원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윌리엄리는 대학 2학년 때 워싱턴 D.C에서 달라이라마의 법문을 듣고 불교에 귀의했다. 10여년 전부터 사불수행을 위해 티베트 라랑가르 불교대 전통불화승 켈포와일의 제자가 되어 정식으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후 매일 새벽 물을 끓여 석채를 개어 절실한 마음으로 사불을 하며 수행과 기도를 이어왔다.

이렇게 완성된 그의 작품들은 녹색따라, 백색따라, 천수관음, 약사여래, 육도윤희,



윌리엄리의 '행복왕국에서 건너온 신의 미소' 전이 2014년 1월 31까지 전북 정읍 갤러리 정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만다라와 탕카 미술 29점을 만나볼 수 있다. 사진 왼쪽은 부귀를 상징하는 녹색 따라보살, 사진 오른쪽 백색 따라보살은 질병을 막아준다고 전해진다.



티베트 불교 심취해 사불 수행 시작

내년 1월까지 갤러리 정서 전시 최근 한국부탄문화원장에 부임도



작가 윌리엄리는 10년째 매일 아침 사불 수행을 한다. 탕카에 이어 최근에는 한국의 불화도 공부중에 있다.

금강살타 등 다양한 밀교식 탕카로 탄생되었다. 특히 부탄-티베트 불교에서 가장 사랑받는 불보살인 따라보살은 주목된다. 성이십일존파라에찬경에 따르면 "따라보살은 삼계의 수호자인 관세음보살님이 홀린 생사계의 수호자인 관세음보살님이 홀린 연민의 눈물방울에서 피어난 한 줄기 연꽃에서 탄생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 녹색 꽃과 백색꽃은 녹색과 백색 따라를 각각 탄생시켰다. 윌리엄리는 "녹색따라의 따라는 수명과 부귀 복덕과 지혜를 담당하며 백색따라는 질병의 구제와 액난의 소멸과 마장을 파괴한다"고 설명한다.

이밖에도 '육도윤희'는 그 사람의 업에 따라 천상계 수라계 인간계 축생계 아귀계 지옥계로 나누어 태어난다는 불교와 힌두교의 사후세계를 보여준다. 12상도는 석가모니의 생애를 표현한 것으로 한국의 팔상도와 비교될 만하다.

이렇게 시작된 작가의 사불 수행은 한국 불화로 옮겨왔다. 2009년 한국에 정착한 그는 일석문도회 전수자 일철 이철승 선생에게 한국불화를 공부하며 백의관을 화관보살 문수보살 등의 한국 불화를 완성해

냈다. "탕카와 한국불화의 문양이 많이 다른 듯 보이지만 그 시원을 따지면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려불화는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고 이는 밀교의 영향이 크죠. 그래서 우리의 불화 역시 그 시원을 밀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탕카와 고려불화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전시는 정읍에 이어 내년 2월 보성대 원사 티베트 박물관을 거쳐 서울에서도 열릴 예정이다. 또한 불교 국가 부탄의 매력에 빠져 2005년부터 20여 차례 부탄을 방문한 윌리엄리는 작년에 한국부탄문화원장으로 부임, 앞으로 전시와 더불어 '부탄행복명상' 등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작품 판매 수익금 전액은 티베트 비구니사원 어린이 고아원에 기부된다. 티베트 본토에 위치한 아칭스라는 비구니사원과 카취카기일 사원은 약 500명의 비구니님이 공부하고 수행하는 곳이다. 이 사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고아원은 항상 음식이 부족해 어린이들의 영양실조가 걱정되는 상태다. (010)9674-0012

정혜숙 기자 bwjns@hyunbul.com

부처님 가르침에서 일깨운 '생명의 빛'

불화작가 정혜성의 개인전... 11월 27일부터

불화작가(佛母) 송헌 정혜성의 '생명의 빛' 개인전이 11월 27일~12월 3일 인사동 갤러리 아이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연꽃 소나무 단풍 등 25점의 문화를 작품에 담아냈다.

오랜 시간 불화를 그려온 작가는 불화의 새로운 시도를 위해 문인화로 작품을 표현해냈다. 알록달록 단풍은 삶의 마무리가 그리 초라하지 않음을, 부처의 마음을 담

은 연꽃은 화려함과 정정함의 조화를, 곳곳한 소나무는 굴하지 않는 기세를, 초록의 새싹은 생명의 근원을 일깨워준다. 이처럼 작가는 자연을 통해 참된 '생명의 빛'을 전해준다.

"부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이 우주의 모든 것이 인간의 스승입니다. 산 위에 우뚝 선 바위는 인간에게 혼탁 속에서 허우적대지 말고 초연히 내면의 중심을 지키라

고 경고합니다.

불화의 한 과정이기도 한 문인화에 매료된 것도 이런 '생명의 빛'에 끌렸기 때문입니다. 물결이 양심을 밀어내고, 거짓이 진실을 가리고, 화려함이 소박함을 덮는 이 시대엔 '생명의 빛'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작가는 경전공부 참선수행 등으로 불법의 가르침을 생활화하고 있다. "한때 출가를 결심하기도 했지만 마음의 중요성을 알고 그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일상에서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시는 불화를 주제로 해보고 싶습니다." (02)733-3695



송헌 정혜성의 '생명의 빛' 전이 갤러리아이에서 열린다.

정혜숙 기자

대한불교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전강대선사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가 일체종지를 통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였다.

현재 31종 62권의 저서가 출간되었습니다. www.zenparadise.com 참조 031-534-3373

"이 세계에 속한 모든 것은 인식의 표상에 불과하다"

불교심리학의 정수 **유식삼십승唯識三十頌 강의**

이계목 역해 246*178mm | 흑백 | 332쪽 | 15,800원

마음 밖에 따로 대상이 없음을 설한 대승 심리논서

대소승을 막론하고 <유식삼십승>은 불자라면 꼭 연구해야 할 필독서다. 마음을 닦아, 마음을 깨달아 안심(安心)을 얻고 완전한 자유를 얻는 불교심리학의 정수가 바로 이 경전에 담겨 있는 까닭이며, 마음을 주제로 하여 교학을 일목요연하게 체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 유식삼십승 해설은 동학사 강원본을 참조하였으며 일본 龍名大學 불교학 교수인 深浦正文의 唯識三十頌論 解説本을 관용노사가 번역한 譯本(역본)을 참고하여 현대어로 풀어 엮었다.

비움과소통 www.facebook.com/BlumSolong (02)2632-8739

보시

꿈과 노력이 있으면 성취할 수 있다지만 방법을 알고 있다면 더더욱 쉽게 성취 할 수 있겠지요.

부처님의 진리를 담은 전심법해 삶의 방식과 지혜로 부자되는 방법 참회하고 노력하여 부자되는 방법 언행일치로 참 행복 얻는 방법

4가지 책을 원하시면 전남 곡성군 옥과면 설옥리 설산 사자암 사자암 송암스님 010-8224-1688 전화문의하세요.

책 발송을 원하시면 1만원 입금하시고 농협 : 351-0515-8213-93 예금주: 사자암 책 받으실 법우님 주소를 문자 주세요.